한국의 경영학연구: 이대로는 안 된다*

김인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linsukim@unitel.co.kr)

우리 나라의 경영학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4,000편이 넘는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될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이론을 개발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론개발과정에 관한 이론에 비춰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론과 우리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간의 mismatch가 심각하다. 즉, 대부분의 연구는 선진국의 이론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거나, 한국적 상황을 별로 고려함이 없이 선진국 이론의 연역적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적 연구에 치중해 왔다. 먼저 우리 나라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이론도출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기술적 이론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역적 가설검증 연구가 아무리 많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이론을 개발하는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미국 대학의 편향된 박사과정 교육에서 기인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둘째, 연구추진과정에 비춰 보면 그 동안 연구논문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평가하고 통합하는 비평적 고찰논문이 별로 없으므로 인해 연구의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해왔다. 한국의 경영학연구가 이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한 경제위기는 외환과 금융시스템 관리의 미숙과 외국투자자들의 조급한 대출회수에 의해 야기되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전문성 결여, 경영능력의 부족, 정부와 기타 조직의 경직성, 사회 전체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이기주의 등이 맞물려 야기된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 기업이 도산하는 현상적 원인은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이지만, 그 근본은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오랜 적자의 누적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경험한 외환이나 금융위기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 상실이 가져온 마지막 증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의 상실에 있다고 보면,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정부, 기업은 물론 학계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간 우리 경영학계가 해온 역할을 반추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 보는 것은 대단히 시의 적절한 일이라 여겨진다.

우리 나라에 상학(商學)이 도입된 지 100년 가까이 경과하였고 현대식 경영학이 도입된지도 약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또한 경영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이 1958년에 한국경영학회를 조직한 이래 40년이 넘게 경과하였다. 한국경영학회의

이 논문은 원로교수의 특별기고 논문을 받기로한 1998년 9월의 편집위원회(당시 위원장: 유필화)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하여 저자가 제출한 논문을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하게 됨 - 편집위원장 註

* 본 논문은 1999년11월29일 삼성경제연구소가 후원하고 한국경영연구원이 주관한 [경제위기와 한국 경영학: 반성과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심포지엄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이학종, 전용욱, 유필화, 황일청, 곽수일, 김용수 등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자료 수집에 수고해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배보경, 설현도, 이춘근, 신상근 등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학술지인 〔경영학연구〕가 창간된 1971년이래 경영학계의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특히 90년대의 지난 9년 동안 경영학 관련 국내학회의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의 총수는 2,933편으로, 그 이전 32년 동안 발표된 총 논문 수 1,079편에 비해 3배에 가까울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영학 연구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과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경영학회의 역사가 40년 이상 경과하면서 수천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경영학에 종사하는 학자가 한국경영학회 회원수로 보면 2,700명을 넘어설 만큼 양적으로 급신장을 하였지만,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이론을 제대로 만들어 내고 있는가라는 면에서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이란 우리 나라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최고의 경쟁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을 말한다. 여기에는 선진국의 경영이론 중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있겠다. 그러나 선진국의 모든 이론이 다 우리에게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적절한 이론을 선별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많은 경우 사회문화와 경제환경이 다른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선진국 이론을 적절히 변형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 기업이 독특하게 개발한 이론도 포함될 것이다.

기존 경영학 이론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정립된 것이어서 미국적 경영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본기업에 관한 독특한 일본경영학 이론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Yoshino, 1968; Abegglen and Stalk, 1988 등). 이에 비하여 우리 경영학계는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이라는 것을 아직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어느 대학이나 〔한국경제론〕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잘 정리된 교과서도 여러 권 있는데 비해, 경영학계는 우리 것을 만들어 내는 작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 〔한국경영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에 관련된 적절한 교육자료로는 신유근(1992)을 제외하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짚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영학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4가지 방법 -- 국제적 학술지, 국내학회의 학술지, 대학의 논문집, 박사학위 논문 등 -- 을 통해서 발표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국내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비하여 이를 파악하는데 투입되어야 하는 노력이 방대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학의 논문집은 학회의 학술지에 비해 몇 배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으나 이들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전국적으로 배포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파악하고 확보하는 것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국내학회의 학술지 명단은 〈표 1〉과 같다.

기존의 연구들을 평가하려면 논문에 대한 철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난 9년(1991-1999) 동안 국내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만도 2,933편에 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논문을 내용 분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행히 일부 분야(예: 인사조직, 경영전략, 회계학, 마케팅, 경영정보학 등)에서는 최근 그 분야 연구들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논문의 내용분석을 수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것들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분석에 근거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 경영학 연구의 주변여건 변화와 성장추이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이론개발 과정"의 관점에서 과거 40년 동안의 경영학 연구를 평가하고, 제4장에서는 "연구추진 과정"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경영학 연구가 앞으로 추구해야할 과제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II. 경영학 연구여건의 변화와 성장추이

어느 분야이든 학문적 연구가 진전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한다. 그 하나는 推進要因(push factor)이고 다른 하나는 誘引要因(pull factor)이다. 대표적 추진요인으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학자에게 요구하는 "publish or perish"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계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경쟁적 심사과정을 거쳐 발표하지 못하면 사표를 내야한다는 냉혹한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학자들은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학문이 발전하게 된다. 미국 경영학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칙이 많은 대학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나라의 많은 대학에서도 선진국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연구업적을 교수들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별 심사

〈표 1〉 국내학회와 학술지 명단*

학 회		학 회 지	
학 회 명	창립년도	학 회 지 명	창간년도
한국경영학회	1958	경영학 연구	1971
인사조직학회	1990	인사조직 연구	1992
인사관리학회	1978	인사관리 연구	1979
전략경영연구	1997	전략경영 연구	1998
한국증권학회	1976	한국증권학회지	1980
한국재무학회	1987	재무 연구	1988
한국회계학회	1973	회계학 연구	1977
		회계학 저널	1993
한국경영과학회	1976	한국경영과학회지	1976
		경영과학	1984
한국생산관리학회	1989	생산관리연구	1990
한국경영정보학회	1989	경영정보학 연구	1991
한국마케팅학회	1985	마케팅 연구	1986
소비자학회	1980	소비자학 연구	1990
한국광고학회	1989	광고학 연구	1990
유통학회	1995	유통연구	1996
한국국제경영학회	1989	국제경영학 연구	1990
한국무역학회	1974	무역학회지	1975

* 중소기업학회에서 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연구〕는 포함되지 않음

〈표 2〉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증가 추이 (단위: 억원)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사회과학분야	7.4	15.0	17.3	27.7	52.3	78.8
경영학 분야	-	-	-	3.7	13.1	13.7

없이 논문게재가 가능한 대학의 논문집보다는 심사가 까다로운 국제적 학술지나 국내학회의 학술지에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유인요인으로는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연구비의 지급, 연구 시간의 확보를 위한 강의부담의 경감, 연구업적이 특출한 학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상 등을 들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명문대학일수록 교수의 인사고과에 있어서 연구업적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많으며 이런 고과제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보상제도와 지원책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추진요인과 함께 이러한 유인요인들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이 매우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을 계기로 학자들의 연구비 지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며,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술진흥재단에 의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비 지급총액은 1988년에 7억4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1998년에는 78.8억원으로 10.6배 증가하였다. 경영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 액수도 1994년의 3.7억원에서 1998년의 13.7억원으로 4년 사이에 거의 4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 차원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연구업적이 높은 교수의 강의부담 경감이나 연구업적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상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교수"라는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에게 좀 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정식교수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편법의 하나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좌교수 제도도 연구업적이 특출한 학자에게 주어지기보다는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제도상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경영학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는 편이다. 이에 힘입어 아래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연구활동도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연구활동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는 관련 학회들의 설립추이와 학회 회원수의 증가 추세이다. 지나치게 학회가 분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영학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한국경영학회가 1958년에 설립되었고, 학회지 〔경영학연구〕가 1971년에 출간된 이후 10여 년 동안 단일 학회로서 상당히 다양한 경영학 연구의 장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실제 연구활동은 매우 미미하였다.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친목 단체적 성격이 오히려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회 설립 후 첫 13년 동안은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회지를 발간할 수 없었고, 1971년에 학회지

를 창간한 이후에도 첫 10년 동안은 연구논문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거친 후 게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 후 1970년대에 한국무역학회, 한국회계학회,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과학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등 여러 학회가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연구활동이 미미했던 것은 마찬가지다.

1980년대 중반까지 학회 활동이 미약했던 가장 큰 원인은 학자들의 절대 수 부족이나 그들의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연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이 별로 없었다는 데 있다. 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한국경영학회를 기준으로 볼 때 회원 수는 1958년에 100명 미만이었던 것이 1985년에는 600명을 육박하게 되었고, 1999년에는 2,700명으로 증가하였다. 경영학회 설립 30주년이 되었던 1988년에도 경영학회의 회원 수가 1,000명을 넘었으며, 그 대부분의 회원들은 국내외에서 철저하게 박사과정 훈련을 받은 "준비된" 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영학 전체 분야를 다 망라하더라도 국내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총수는 〈표 3〉에서 보듯이 15년 동안 571편(연평균 38.1편)에 불과하였다. 경영교육 등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을 제외한 총 논문 수를 다시 경영학의 8대 분야 — 인사조직, 전략경영, 회계학, 재무관리, 마케팅, 경영과학, 경영정보학, 국제경영 등 — 로 나누어 보면 분야별 연평균 논문 발표수가 3.9편에 불과하였다. 더 세분해 보면 경영관리분야의 경우 조직, 인사, 노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각 분야별로는 1년에 겨우 한편 정도의 논문밖에 발표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참담할 정도의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렇게 80년대까지는 연구활동이 저조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이 강화되면서 학회의 설립과 학회지에 제출된 논문 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논문에 대한 심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경쟁적 연구활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

〈표 3〉 학회지에 게재된 경영학 연구논문(1971-1999)*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1999		총계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경영학일반	3	6.8	3	1.6	3	0.9	0	0.0	1	0.1	6	0.4	16	0.4
생산/계량	1	2.3	97	50.5	76	22.7	102	19.4	262	19.3	281	17.9	819	20.3
재무	5	11.4	13	6.8	35	10.4	100	19.0	159	11.7	164	10.4	476	11.8
마케팅	3	6.8	4	2.1	22	6.6	68	12.9	179	13.2	284	18.0	560	13.9
인사/조직	7	15.9	9	4.7	57	17.0	38	7.2	110	8.1	142	9.0	363	9.0
전략/정책	3	6.8	0	0.0	0	0.0	7	1.3	6	0.4	18	1.1	34	0.8
회계	11	25.0	16	8.3	23	6.9	74	14.0	193	14.2	193	12.3	510	12.7
국제경영	0	0.0	18	9.4	49	14.6	58	11.0	213	15.7	221	14.0	559	13.9
경영정보	0	0.0	0	0.0	18	5.4	72	13.7	216	15.9	240	15.2	546	13.5
기타	2	4.5	1	0.5	6	1.8	8	1.5	20	1.5	25	1.6	62	1.5
제외	9	20.5	31	16.1	46	13.7	0	0.0	0	0.0	0	0.0	86	2.1
총계	44	100.0	192	100.0	335	100.0	527	100.0	1359	100.0	1574	100.0	4031	100.0
연평균	8.8		38.4		67.0		105.4		271.8		393.5			

* 중소기업연구는 포함하지 않음

게 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국내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총수도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5년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70년대에는 겨우 44편과 192편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335편과 527편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첫 5년 동안에는 1359편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4년 동안(1996-1999)에는 1,574편이나 되는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이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영학 전 분야에 걸쳐서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 평균치로 보면 경영학 전체의 경우 연평균 편수는 1970년대에는 8.8편과 38.4편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대에는 67편과 105.4편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271.8편과 393.5편으로 증가하였다. 경영학 8대 분야별 연평균 편수도 1970년대에는 0.8편과 4.0편이었던 것이 1980년대에는 7.1편과 13.2편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33.9편과 49.2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각 분야 내에도 상당히 이질적인 세부 분야가 있고 그 세부 분야 내에도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이론을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이론개발 과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경영학 연구 평가

이론개발 과정의 고찰

먼저 경영학과 같은 응용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론이 창출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고찰해 보고, 이에 비추어 보아 그 동안 이루어진 우리 나라 경영학 연구들이 그 개발 과정 면에서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적절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경영학 이론의 기초는 기업 현장에서 만들어지며, 학자들은 이러한 현장의 실무현상을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이론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분야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심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 — 현상기술적(現狀記述的)이론, 상관관계적 이론, 인과관계적 이론 및 처방적 이론 등의 단계 — 를 거쳐 개발되어야 하며, 각 이론의 단계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연구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Reynolds, 1972).

첫째, 이론의 기초는 현장 실무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물리적 요소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량적 모형 도출(modeling)의 경우를 제외하면, 경영학 이론의 대부분은 — 어떤 선진국 학자는 90% 정도라고 주장 —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현장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는 경영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Chester Barnard가 ATT 사장 시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The Functions of Executives (1938)'라는 책에서 제시된 이론의 경우이다. 학자들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주목하기 시작한 조직문화의 개념과 중요성을 그는 기업경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1938년에 출간한 그 책에서 이미 정리하고 있다. 그 이론적 깊이와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Barnard는 은퇴 후 Harvard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되었고, 그의 이론은 후에 Simon과 March로 연결되면서 의사결정론이라는 새로운 학파를 탄생시키기까지 했다. 또한 Alfred Sloan이 GM 회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My Years at

General Motors(McDonald, 1963)'도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박사학위 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고전에 속한다. 또한 생산관리 분야에서 잘 알려진 JIT 시스템은 일본의 Toyota자동차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이며, 최근 조직이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조직 이론도 일본의 전자, 자동차회사들의 계열화 현상과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관계에서 그 기초가 형성되었다. 그 뿐 아니라 최근 생산관리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Six Sigma는 Motorola사에서 창안해낸 아이디어이다. 이런 것들을 기업의 'Best Practice'라고 칭하고 있다. 학자들이 현장연구를 통하여 이런 Best Practice들을 발견하고 정리함으로써 이론화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이론은 학자들이 아니라 현장의 실무자들이 먼저 만들어 내며, 학자들이 나중에 그것들을 정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론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이론이 개발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Best Practice들을 깊이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Kim(1998)이나 이홍(1999) 등이 한국 기업의 Best Practice를 연구하고, 이로부터 이론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행들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기업경영 현상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미개척 분야의 경우, 그 Best Practice의 현상을 규명하고 정리하는 이론이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을 현상기술적(現狀記述的) 이론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현상의 기본적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현상을 파악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정교한 이론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관련 변수를 제시하고 분류하며,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면, 전략경영론의 경우, Porter(1990)가 기업의 사업전략을 차별화(differentiation), 원가우위(cost leadership), 집중(focus) 등으로 분류한 것이라든가, Miles와 Snow(1978)가 공격형(prospector), 분석형(analyzer), 방어형(defender), 수동형(reactor) 등으로 분류한 것이 여기에 속한다. 조직이론의 경우 Greiner(1972)와 Quinn과 Cameron(1983)의 조직수명주기 이론이나 Mintzberg(1979)의 조직성장경로 이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제경영의 경우 Stopfold와 Wells(1972)의 국제기업조직변화 경로이론이라든가 Ghoshal과 Noria(1990)의 초국적기업의 조직이론 모형 등이 여기에 속한다. Utterback과 Abernathy(1978, 1994)의 동태적 기술혁신모형도 수많은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수행한 경쟁전략과 혁신 행태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만들어진 이론이다. 미국 기업 중 1970년대의 고난기를 잘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달성한 미국 우수기업을 연구한 Peters and Waterman(1982)의 연구는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Chandler의 Strategy and Structure(1962), The Invisible Hand(1977)와 Scale and Scope(1990)도 좋은 예이다. 보다 최근의 사례로는 일본 기업의 Best Practice를 연구하여 지식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게 한 Nonaka와 Takeuchi(1995)의 지식창조이론을 들 수 있겠다.

연구방법론이 발달하여 아무리 분석적으로 계량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현상기술적 이론을 개발하는 데에는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는 귀납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현상을 심층 분석·기술하고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

을 도출하고 그 관계들에 대하여 잠정적인 명제(propositions)들을 제시하는 식의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Ethnomethodology(Garfinkle, 1967) 또는 현상학적 접근이라고도 하고, 이론도출적(theory-generating) 연구라고도 한다(〈도표 4〉 참조).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탐색적 단계의 연구는 모든 학문분야가 그 이론을 새로 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로써 연구영역의 탐색, 즉 관심 분야의 현상을 규명하고 중요한 특성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제시한 선진국의 새로운 이론들도 계량적 연구방법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심층적 현상 관찰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들이다. 개념개발 단계에서는 이렇게 탐색적 단계에서 제시된 사회적 현상을 차후에 검증하기 위해 관심영역의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개념적 틀을 구축하며, 그것들을 변수화하는 단계를 말한다. 가설도출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탐색적 단계에서 제시된 현상을 구체적인 연구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명제들로 바꾸는 단계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특정 분야에 관한 현상기술적 이론이 축적되고 그로부터 개념적 틀들이 제시되면, 이러한 개념적 이론들을 연역적으로 고찰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 자료로 검증해 보는 이론검증적 연구가 가능해진다. 즉, 제시된 가설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가를 검증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가설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게 된다. 이 단계가 내적타당성 검증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상관관계적 이론이 개발되고 이러한 상관관계적 이론이 충분히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적 가설이 연역적으로 도출된다. 이 과정에서는 계량적 연구방법론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현상기술적 이론이 현실을 광범위하게 기술하지만 철저하지 못한데 비해, 이론검증적 연구는 소수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검증하기 때문에 철저하기는 하지만 좁은 영역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적 타당성이 검증되면 마지막으로 내적 타당성이 있는 변수간의 관계가 다른 상황하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게 되는데 이것을 외적타당성 검증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적타당성까지 검증된 이론들이 많이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처방적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다.

이론개발 과정에 비춰 본 한국의 경영학연구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자원적 제약으로 3,600여 편의 방대한 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몇 분야에서는 최근에 그 분야의 논문들을 내용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김인수(1988)의 연구는 경영학 전반에 걸쳐 1986년까지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내용분석하였다. 최만기와 박오수(1993)는 조직행동론 분야의 연구 논문들을, 이진규와 박기찬(1993)는 인사관리분야의 연구 논문들을, 김영배와 한정화(1993)는 전략경영분야의 연구 논문들을 내용분석하였다. 이들 세 연구는 관련 분야의 학회 학술지뿐만 아니라 대학의 논문집 및 박사학위 논문까지도 총 망라한 의욕적인 연구였다. 이선구와 정연앙(1993)은 노사관계분야의 연구동향을 내용분석하였으며 학회의 학술지와 박사학위 논문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에도 경영정보학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백상용과 박경수(1995)의 연

〈표 4〉 이론개발 과정과 연구방법론

이론의 위계	이론개발 단계	연구접근	방법론
현상기술적 이론	이론도출적 연구	귀납적 접근	정성적
	탐색 단계		
	개념개발 단계		
	가설도출 단계		
	이론검증적 연구	연역적 접근	계량적
상관관계적 이론	내적타당성 검증 단계		
인과관계적 이론	외적타당성 검증 단계		
처방적 이론			

주) Spender (1979)의 연구단계와 여러 사회과학자들의 이론 분류를 통합작성.

구, 지난 20년 동안의 회계학연구를 내용 분석한 권선국과 조성표(1997)의 연구, 마케팅분야의 논문들을 내용 분석한 김용준 등(1999)의 연구가 있다. 이들 세 연구는 모두 관련 분야의 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분야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공통된 분석적 틀을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통합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연구들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행동론 분야의 경우, 학회의 학술지 논문은 전체의 10.8%에 불과하고 대학의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이 79.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개념적 연구가 67.8%, 실증적 연구가 32.2%를 차지하고 있다. 개념적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이론의 소개에 편향되어 있다. 실증적 연구의 경우 사례 발굴이나 탐색적 연구는 12.5%에 불과하고, 단순한 실태조사가 34.4%에 이르며 51%는 외국 가설의 단순 적용에 머물고 있다. 86.2%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였고 종단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7.4%에 불과하다(최만기와 박오수, 1993). 결론적으로 그 동안 수행된 조직행동론 분야의 연구는 "상당히 비체계적이며 편향적인 경향을 보였고… 축적적이지 못하였으며…(p.56) 새로운 이론 혹은 모형을 제시한 논문은 한편도 없었다"(p.58).

인사관리 분야의 경우, 대학의 논문집에 발표된 연구가 65%,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35%이다. 그 중 개념적 연구가 41.3%, 실증적 연구가 58.7%를 차지하고 있다. 개념적 연구의 75%는 기존 외국이론의 소개에 편향되어있고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13.5%에 그치고 있다. 실증적 연구의 경우 가설검증과 실태조사가 74.3%를 차지하고 있고 가설검증 연구중 대부분은 외국의 가설을 우리 나라에 적용한 것들이며, 95.7%는 횡단적 연구이다(이진규와 박기찬, 1993). 결론적으로, "아직도 여러 분야 공히 개론적인 혹은 일반적인 기존 연구의 내용을 요약, 소개, 정리하고 있는 논문이 많으며…(p.132), 한국적 인사관리 이론의 개발문제는 아직까지 시론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p.131).

전략경영 분야의 경우,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전체 연구대상의 12.2%에 불과하고 74.8%가 대학의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들이다. 그 중 개념적 연구가 59.9%, 실증적 연구가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증적 연구 중 69.1%가 횡단적 자료

를 분석한 것이고 종단적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14.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 경우이다(김영배와 한정화, 1993). 결론적으로, 개념적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들도 "이론이 형성되기까지의 배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기법 위주로 제시된 피상적인 소개가 많아서 학문적 유용성은 물론, 실무적 유용성 면에서도 기여도가 높지 못하다.… 이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쓰는 한국적 풍토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p.180). 실증적 연구의 경우, "외국이론의 검증 및 유형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한편,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p. 181). 또한 우리 나라 기업에 적절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심층 사례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노사관계 연구의 경우, 개념적 연구가 57.2%, 실증적 연구가 42.8%를 차지하고 있다. 개념적 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의 비판적 고찰이 11%를 차지하고 대부분은 기존의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이다. 실증적 연구의 경우 탐색적 연구는 7.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실태조사에 편향되고 있다. 노사관계 분야 연구의 주요 특성으로는 가설검증적 연구가 겨우 5.3% 밖에 되지 않고 연구방법도 71.7%가 2차 자료를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 2차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가 71.7%에 달하고 있지만 국가수준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기업수준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노사관계 연구의 87.6%가 산업이나 국가단위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선구와 정연앙, 1993).

경영정보학 분야 관련 세 학회의 학술지 논문을 내용 분석한 백상용과 박경수(1995)의 연구에 의하면, 비실증적 연구가 46%, 실증적 연구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비실증적 연구 중 개념적 연구가 51.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정보시스템 개발이나 수리모형 개발이다. 실증적 연구의 경우 설문지 연구가 58%이고 사례 및 실험실 연구가 42%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사 연구와 비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적절한 이론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분석의 심도가 약한 편이다.

한국회계학회의 〔회계학연구〕에 20년 동안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한 권선국과 조성표(1997)의 연구도 미국의 Accounting Review를 분석한 논문과의 비교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적절한 이론개발이라는 측면에서의 분석은 취약하다. 이들에 따르면, 1977년부터 1996년까지 발표된 225편의 회계학 논문 중 실증적 연구가 69%를 차지한다.

마케팅분야 관련 네 학회의 학술지를 분석한 김용준 등(1999a)의 연구와 소비자학 연구지 게재 논문을 분석한 김용준 등(1999b)은, 연구가 적게 되고 있거나 미진한 부문의 규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우리 기업에 적절한 이론 개발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을 그 목적에 따라 탐색적, 기술적, 인과적 연구로 분류하고 있어 위의 다른 연구들과 분석의 틀이 달라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음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우리 나라 경영학연구 결과들을 이론개발 과정의 틀을 가지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분석의 연구들 뿐만 아니라, 앞서 〈표 1〉에 제시한 여러 학회 학술지의 모든 경영학 논문의 제목을 조사하고, 일부 논문은 그 내용까지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비록 좀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조직행동론, 인사관리, 전략경영 분야의 연구대상 논문들을 보면, 71%가 경쟁적 논문심사 과정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대학의 논문집에 발표된 것이다.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특수 사정이 있는 인사관리분야를 제외하면 10%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의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비단 이 세 분야만의 경우가 아니다.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도 대학의 논문집이 포함되었다면 비슷한 비율을 보였을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경영학 연구가 질적으로 얼마나 낙후되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둘째, 우리 나라의 문화와 경제사회 환경이 선진국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현상기술적 이론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영학회가 설립된 지 30여년이 되는 1980년대 말까지는 그러한 논문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김인수, 1988).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연구들이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행동, 인사관리, 전략경영, 노사관계 등의 분야에서도 내용분석에 기초한 현상기술적 이론이 별로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도에 들어와 여러 분야에서 한국적 현상을 규명하려는 탐색적 이론 도출을 시도한 연구 논문들이 약간 발표되고 있다. 몇 가지를 예로 들면,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김정석(1991), 장영광과 송인만(1991), 이장우와 이민화(1995), 신유근(1996), 손태원과 최만기(1998), 이홍(1998), 이덕로와 서도원(1998), 김건우(1999) 등을 들 수 있다. 전략경영 분야에서는 김영배(1994), 임준철(1997) 등,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두희와 임택경(1993)과 조형오(1996) 등, 국제경영 분야에서는 정구현(1990), 조동성과 이지환(1993), 장세진과 박성진(1996), 전용욱과 윤동진(1998) 등, 경영정보학 분야에서는 정인근(1994) 등이 있다. 이론도출을 위한 현상기술적 연구 결과를 단행본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신유근(1984, 1993), 이학종, 정구현 및 정계훈(1989), 이학종(1993), 김수곤(1992), 이장우와 이민화(1994), Kim(1997), 이홍(1999)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가 한국적 상황을 기술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즉, 한국적 상황을 깊이 있게 규명하고 통찰력 있는 결과를 제시해 주는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 개발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위의 내용 분석적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념적 연구가 평균 56%를 차지할 만큼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외국의 개념과 분석적 모형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적 현상을 규명하는 현상기술적 연구 결과들을 발전시켜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분석모형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현장 연구로부터 나오는 현상기술적 이론들의 축적과 이들을 개념화하고 분석적 틀을 정립하는 작업이 충분히 진전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연역적 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하는 이론검증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경영학계가 이와 같이 이론개발의 초기단계의 작업에 충실하지 않는 한, 우리 기업에게 크게 도움을 줄 만한 경영학 이론을 개발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넷째, 실증적 논문이 전체 연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논문은

외국의 문헌을 연역적으로 접근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을 우리 나라 기업 현장에서 검증한 것들이다. 이러한 논문들은 대단히 분석적이어서 존경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개발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외국적 가설이 우리 나라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검증해보는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외국의 문헌을 연역적으로 접근하여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이론검증 연구를 한 논문이 몇 년 전 우리 나라 어느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결론은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수명주기는 우리 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금도 놀랍지 않다. 만약 그 학자가 귀납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의 현상을 탐색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도출적 연구를 했더라면 선진국에서 개발한 제품수명주기는 우리 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독특한 한국적 제품수명주기 이론을 새로 개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선진국의 모형과 한국적 모형의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기업에 적절한 경영이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석 하나를 놓는 공헌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적 상황을 별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선진국의 문헌을 연역적으로 접근하여 가설을 도출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현재 한국 경영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영학계가 질적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가 급속도로 세계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모든 기업이 서구식 경영학 이론을 도입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구식 경영학 이론 중 어떤 것은 있는 그대로 도입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선별해내기 위해서도 우리 기업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만약 서구에서 검증된 이론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업환경에 맞도록 적절히 변형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더 우리 기업환경을 깊이 연구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는가? 우리 나라 경영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중견 및 소장 학자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는 현상기술적 이론이 풍부하고 관련 개념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으며 이에 기초한 개념적 틀도 많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연역적 가설도출을 통한 이론검증적 연구가 활발하다. 이를 위해 미국대학에서는 가설검증적 연구방법론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계량적 분석기법들을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경영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고, 그들 밑에서 배운 국내박사들도 비슷한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훈련을 받은 학자들이 정교한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한 이론검증적 연구만이 좋은 논문이고 또한 동료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미국적 가설을 가지고 계량적인 연구를 해보면, 미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 우리의 경영환경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 나아가 한국적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론개발에도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본 저자도 가설검증적 연구방법론을 강조하는 미

국대학에서 박사과정의 훈련을 받았다. 그런 이유로 인해 본 저자도 연구활동의 초기에 비슷한 과오를 저질렀다. 미국에서 연구된 조직혁신에 관한 이론을 연역적으로 가설 도출한 연구를 한국 기업의 현장에 적용해 보았고(Kim, 1980; Kim and Utterback, 1983; Kim and Kim, 1985 참조), Porter (1980)와 Miles and Snow (1978)의 전략유형을 한국기업에 적용해 보았다 (Kim and Lim, 1989 참조). 이들 연구에서 다변량 통계기법을 동원하여 복잡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일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 이론들이 우리 나라 기업에게도 적용되는가를 점검해 보는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한국적 특수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을 이해하는 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연구활동의 초기에 들어선 젊은 학자들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미국대학 경영학계가 "이론개발론(theory construction)"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이론개발 과정과 연구와 이론간의 관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사회학계는 처음 태동하면서 "이론개발론" 과목을 박사과정의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킴으로써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이론을 활발하게 개발하게 하였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 간호학계는 의학의 보조적 오리엔테이션에서 독자적 학문분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이론개발론 과목을 박사과정에 개설하여 철저하게 교육시킨 것도 비슷한 예이다. 비록 미국의 경영학계가 우리 학자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학자들이 "이론개발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후배들에게 훈련시켰더라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새로운 이론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론개발론에서 제기하는 이론개발 과정과 이론과 연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최근 본 저자가 경험한 예를 하나 들기로 하겠다. 얼마 전 어느 박사학위 학생이 미국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작성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가지고 본 저자를 찾아왔다. 200여 개의 외국논문을 연역적으로 잘 정리하여 구축한 분석적 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10여 개의 이론적 가설,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지, 수집되는 자료를 분석할 여러 가지 통계분석 기법 등을 제시하는 야심적 논문계획서였다. 본 저자는 그 학생에게 연구대상이 되는 기업 중 5개를 골라 면접을 통한 심층 사례분석을 하되, 가설에서 제시한 변수가 우리 기업에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 변수들간의 관계가 우리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논문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다른 한국적 상황은 없는지를 점검해보라고 주지시켰다. 한달 후에 돌아온 그 학생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만든 변수들 대부분이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으며, 가설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심사위원들을 의식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쓰고 싶어했기 때문에 절충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먼저 선진국의 논문을 바탕으로 관련 변수들을 도출하고, 그 다음 그 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 기업에 가서 깊이 있는 종단적 사례연구를 수행한 후, 이 두 측면의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개념적 틀을 개발하게 하였다. 그 다음 이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가설들을 도출하고 검증하는 타협

적인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택하게 한 것은 비록 그 연구가 가설검증적 연구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보다 한국적 상황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반영시킬 수 있는 논문을 작성하게 될 뿐 아니라, 그 학생에게도 우리 기업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계량적 분석기법이 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영학계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반성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본 저자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세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혁신분야의 경우 ABI/FORM에 의하면 1990년대 초기 5년간 6,244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 박사학위 논문만도 1,336편에 달하고 있다. 좀 더 좁은 범위인 조직혁신 분야의 경우 1,299편의 학술논문과 351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해보면 일관성이 결여되어있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Wolfe, 1994). 이러한 원인은 대부분의 논문들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횡단적(cross-sectional)으로 지나치게 분석적 접근에 매달리고 있는데 있다고 Wolfe는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상당한 연구 역사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이론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이 분야의 이론발달 과정을 분석한 논문에서 Sutton and Staw(1995)와 Pfeffer(1997)는 미국에서도 "좀 더 많은 현상기술적 이론이 제시되지 않고는 강한 이론을 개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경영전략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분야의 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략분야의 Schendel (1996)도 횡단적 분석방법을 가지고는 기업현장의 과정의존적(path dependent)인 동태적 상황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고, 더 나아가 Porter(1991)는 심층적 사례분석을 통한 현상기술적 이론이 많이 제시되지 않고는 기업의 동태적 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논문이 아니면 일류 학술지의 심사에 통과될 수 없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던 미국에서도 새로운 이론개발의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이론도출적인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들이 속속 창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계량적 분석 논문이 주류를 이루는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외에, 이론도출적인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논문을 전적으로 게재하는 Academy of Management Review가 오래 전에 창간되었다. 또한 창의적인 이론 도출 연구들을 주로 게재하는 Organization Science가 최근 창간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Management Science나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같은 기존의 일류 학술지들도 비록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논문이 지배적이지만,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창의적 논문도 다수 게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평가해보면, 우리 나라 경영학 연구들은 '개발되어야 할 이론의 종류와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간에 mismatch'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현상기술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이론도출적인 연구와 도출된 이론을 검증하는 이론검증적 연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상기술적 이론이 별로 없는 이 시점에서 연역적 이론 검증에 많은 연구에너지를 쏟고 있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이론도출적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지금과 같이 현상기술적 이론의 축적 없이 외국의 개념을 소개하거나 외국의 이론을 한

국에서 검증하는 형태의 연구가 지배적으로 계속되는 한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의 개발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Ⅳ. "연구추진 과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경영학연구 평가

연구추진 과정의 고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의 연구는 이론도출적 연구에서 이론검증적 연구로 발전해 간다. 동시에 귀납적 접근에 의한 정성적 연구에서 연역적 접근에 의한 계량적 연구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구추진 과정"이다. 여기에서 연구추진 과정이란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기존 이론과 연구방법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critical review)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이론과 연구방법론이 정리됨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방향이 제시되는 활동을 말한다.

선진국의 학문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탐색적이고 개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로부터 새로운 현상기술적 이론이 많이 제시되고, 이러한 현상기술적 이론은 새로운 탐색적 연구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이론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현상기술적 이론도 점차 축적되어 나간다. 즉, 연구활동과 이론개발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다.

첫 단계의 연구활동과 이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들을 정리하고 통합하기 위한 제 2단계에서는 "비판적 고찰 논문"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은 그 당시까지 수행된 거의 모든 연구와 이론들을 깊이 있게 평가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개념적 틀까지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관련된 이론의 발전과 연구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연구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길잡이가 된다. 그 다음 제 3단계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비판적 고찰 논문에서 제시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고 경영의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이론검증적 연구를 전개하게 된다. 그 결과로 상관관계적 이론이 축적되어진다. 동시에 기존의 현상기술적 이론이 다루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탐색적으로 접근하는 이론도출적 연구도 나타나게 된다. 개척적인 연구는 또 다른 새로운 현상기술적 이론을 창출하며, 그에 따라 연구영역이 점차 확장·발전되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실증연구가 축적되어지면, 제 4단계에서는 그 때까지의 실증연구 및 그 결과로 개발된 이론과 새로 개발된 현상기술적 이론까지를 포괄하여 재정리하고 통합하는 비판적 고찰 논문이 새로 제시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문은 발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처방적 이론까지 개발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구가 추진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산발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이론개발을 중간 중간마다 한번씩 정리하고 통합하는 비판적 고찰논문은, 학문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추진 과정에 비춰 본 한국의 경영학연구 평가

위에서 제시한 연구추진 과정의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의 경영학연구를 평가해보면 한마디로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리 나라 경영학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행동론(최만기와 박오수, 1993), 인사관리(이진규와 박기찬, 1993), 전략경영(김영배와 한정화, 1993), 노사관계(이선구와 정연앙, 1993), 경영정보학(백상용과 박경수, 1995), 회계학(권선국과 조성표, 1997), 마케팅(김용준 등, 1999) 등 특정 경영학 분야의 논문들을 내용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내용분석 연구들은 다루고 있는 학문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개괄적 문제 지적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개괄적 수준의 문제 제기는 학계로 하여금 연구의 영역,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론 등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일반론적 과제를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론의 발전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정 분야에서의 기존 연구와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들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영관리분야에는 김석용(1996), 권석균(1995), 박원우(1997), 정종태와 김인수(1998), 배종석(1999) 등이 있다. 전략경영분야에는 허문구(1990), 한정화(1992), 정명일과 김인수(1997) 등, 국제경영분야에는 이동현(1998), 회계학분야에는 황재식(1987), 이은상(1991), 신준용(1992), 신홍철과 김진환(1997) 등, 경영정보학 분야에는 서태경(1995)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은 앞으로 특정 분야에서의 연구와 이론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 적절한 이론개발에도 약간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이 모두 그 분야에 대한 일반적 고찰이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고찰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선진국에서처럼, 보다 구체적인 이론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이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정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행한 논문은 단 한편 밖에 없다. 백기복 등(1998)이 우리 나라에서 지난 30년 동안 수행된 리더십 연구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문이 각 이론분야별로 많이 나와야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이론개발이 진전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의 경영학계가 우리 기업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학 이론을 개발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많은 경우 연구의 경륜이 짧은 연유로,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만큼의 양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수행된 연구들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개 선진국의 개념적 틀을 소개하거나 선진국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 편향되어 있어서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한국적 상황에 관계된 연구들도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론개발이 불가능하였다.

V. 우리 나라 경영학 연구의 당면과제

경영학계가 지난 40년 동안 경영학 연구에서 상

당한 업적을 쌓아 왔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영학 이론을 개발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 보기로 하자.

첫째, 오랫동안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것은,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이 결여되었다는 점이었다(김인수, 1988).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이 두 가지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지식기반 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겠고, 대학에서도 교수들의 연구여건을 계속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경영학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이론개발 과정과 연구추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론도출적 연구를 통한 현상기술적 이론이 우선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한국적 경영현상을 기술하는 종단적 연구가 많이 수행하여야 하되, 특히 한국적 Best Practice를 찾아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한다. 한국적 Best Practice에는 선진국의 것보다 우리 상황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기법이나 관행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Kim, 1998).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어야만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이론이 개발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나오는 경영이론이야 말로 외국의 그 어떤 이론보다도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진국 이론 중에도 우리의 경영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검증적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에도 선진국의 이론만을 가지고 연역적으로 가설을 정립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한국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를 반영한 변수들을 연구의 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가설검증적 연구의 결과에 대해 보다 더 통찰력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론개발과 연구추진 과정을 효과적으로 밀고 나가려면, 한국경영학회 창립 30주년 때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각 학문분야별로 우리의 경영학 이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간 가동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경영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영역과 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인력이 부족한 우리 상황에서 한국적 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을 감안한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용한 이론도 흡수하여 우리 나라에 적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을 계속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비판적 고찰논문(critical review)를 발표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얼마 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이란 그렇게 단시일 내에 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이상 체계적으로 지속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뇌한국(BK21) 연구과제와 같이 학술진흥재단이나 전경련 같은 단체에서 장기적 과제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론개발위원회가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정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계속되도록 해야한다.

일곱째, 한국경영학회나 기타 관련학회에서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학 이론개발에 기여한 논문에 대해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학자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유발해 야 한다. 특히,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상" 같은 것을 제정하여, 우리 기업에게 적절한 경영이론 개발에 공헌도가 높은 국내외의 박사학위 논문들에 포상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학문활동의 초기부터 한국적 이론개발에 평생 기여할 수 있는 젊은 학자를 발굴·지원하는 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학회가 지나치게 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연구활동의 질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학회가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은 괜찮지만 비슷한 학회가 많이 설립되어 학술활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특정된 분야를 지칭해서 미안하지만, 경영관리분야의 경우 인사조직학회와 인사관리학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학회라는 것이 최근 설립되었다. 위의 두 기존학회의 경우 아직도 학회지 발간 회수가 일년에 두 번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일년에 4회 내지 6회 정도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 영역이 거의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학회를 왜 설립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마케팅분야의 경우 기존의 로지스틱학회와 물류학회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M(Supply Chain Management)학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한국인의 벤처정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venturing이 학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학회활동의 임계치(critical mass)를 파괴하고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VI. 결 론

한국경영학회가 창립된지도 40년이 넘었지만 첫 30년 동안은 촉진요인과 유인요인의 결여로 인해 경영학 관련 학술활동이 대단히 미미하였다. 그후 1990년대에 들어와 촉진요인과 유인요인들이 마련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까지 오르게 되었고, 우리의 기업들과 그들의 브랜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계는 아직 우리 기업의 경영문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학 이론의 정립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가장 큰 이유는 이론개발과 연구활동간의 심각한 mismatch 현상에서 오는 연구활동의 낭비 때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경영학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 주위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어 모든 책임이 경영학계의 어깨에 실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경영학계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추

진하여 우리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이론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영학계가 오는 10년 동안 더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한국경영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2008년에는 우리 기업환경에 적절한 경영학이론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권석균 (1995), "조직학습의 이론적 조망," *인사조직연구*, 3권 1호, 121-164

권선국, 조성표 (1997), "[회계학연구]의 20년: 1977-1996," *회계학연구*, 22권 2호, 203-220

김건우 (1999), "한국기업의 도산 원인," *경영학연구*, 28권 3호, 441-798.

김석용 (1996), "시제도학파적 기업이론과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의 고찰," *경영학연구*, 25권 1호, 107-152.

김수곤 (1992), *한국노사관계론*, 경문사.

김영배, 한정화 (1993), "한국 전략경영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인사조직연구*, 2권, 1호, 139-188.

김영배, 김형욱, 이병헌 (1994), "전략군, 진입특성, 환경인식 및 성과차이: 우리 나라 건강보조 식품 산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19권 2호, 85-106.

김용준, 임양환, 박세환, 백수경, 정상호 (1999a), "한국 마케팅 연구 논문의 분류와 분석: 1971-1998, [경영학연구] [마케팅연구] [소비자연구] [광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14권 2호, 147-174.

김용준, 여정성, 하영원 (1999b), "소비자학 연구지 게재 논문의 분류와 분석: 1990-1998," *소비자학연구*, 10권, 2호, 113-131

김인수 (1988), "한국적 경영학이론 개발을 위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영학 30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549-570.

김정석 (1991), "한국기업의 경영개념에 관한 연구: 문화사회학적 관점," *인사관리연구*, 15집, 297-320.

박원우 (1997), "임파워먼트: 개념정립 및 실천방안 모색," *경영학연구*, 26권 1호, 115-138.

배종석 (1999), "경쟁우위와 인적자원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연구방향 모색," *인사조직연구*, 7권 2호, 1-45.

백기복, 신제구, 차동욱 (1998), "한국 경영학계의 리더십 연구 30년: 문헌검증 및 비판," *경영학연구*, 27권 1호, 113-156.

백상용, 박경수 (1995), "한국 경영정보학 연구 경향 분석: 1974-1993," *경영정보학연구*, 5권 2호, 37-50.

서태경 (1995), "정보기술과 조직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재 고찰," *경영정보학연구*, 5권 1호, 129-163

손태원, 최만기 (1998), "세계화 정보화 시대 한국기업의 신경영 패러다임의 탐색," *인사조직연구*, 5권 3호, 1-28.

신유근 (1984), *한국기업의 특성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신유근 (1992), *한국의 경영*, 서울: 박영사.

신유근 (1996), "한국기업 최고경영자의 행동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인사조직연구*, 4권 2호, 203-233

신준용 (1992), "기대이론 접근방법에 의한 회계학연구에 대한 고찰," *회계학연구*, 15호, 135-146.

신홍철, 김진환 (1997), "분석적 계층화과정의 본질 및 연구동향의 고찰," *회계저널*, 6권 1호, 143-180.

이덕로, 서도원 (1998), "한국기업의 경영특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 *경영학연구*, 27권 4호, 911-936

이동현 (1998), "국제경쟁력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제경영연구*, 9권 1호, 130-154.

이두희, 임택경 (1993), "한국적 광고이론 개방의 토대," *마케팅연구*, 8권 2호, 231-258.

이선구, 정영앙 (1993), "한국 노사관계 연구의 전망과 과제," *인사조직연구*, 2권, 1호, 189-232.

이은상 (1991), 위임자-대리인 모형을 이용한 관리회계연구에 대한 고찰," *회계학연구*, 13호, 161-183

이장우, 이민화 (1994), *혼경영*, 서울: 김영사

이장우, 이민화 (1995), "신바람 관리: 개념적 모형," *경영학연구*, 24권 2호, 339-370.

이진규, 박기찬 (1993), "한국 인사관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인사조직연구*, 2권 1호, 75-138.

이학종 (1993), *한국의 기업문화*, 박영사.

이학종, 정구현, 정계훈 (1989), *한국기업의 구조와 전략*, 서울: 법문사.

이홍 (1998), "경영자 관점의 적합성(fit)과 경영자의 지배적 논리(dominant logic)," *경영학연구*, 27호 4권, 1091-1111

이홍 (1999), *한국기업을 위한 지식경영*, 서울: 명경사.

임준철 (1997), "한국제조업의 상황 적합적 기업전략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26권 2호, 427-452.

장세진, 박성진 (1996), "한국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패턴: 순차적 진입을 통한 기업내부능력 구축" *경영학연구*, 25권 3호, 205-246.

장영광, 송인만 (1991), "한국기업의 합병동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연구*, 20권 2호, 1-38.

전용욱, 윤동진 (1998), "한국 가전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영학연구*, 27권 2호, 541-561

정구현 (1990), "한국 기업의 국제화," *마케팅연구*, 5권1호, 210-222.

정명일, 김인수 (1997), "다각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자원기준 관점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26권 4호, 915-940.

정인근, 윤종욱, 서원욱 (1994), "우리 나라에서의 집단의사결정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4권 1호, 74-114.

정종태, 김인수 (1998), "정보기술과 조직구조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영학연구*, 27권 3호, 789-814.

조동성, 이지환 (1993), "한국재벌의 기업승계유형이 다각화전략에 미친 영향," *경영학연구*, 22권, 2호, 121-140.

조형오 (1996),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분류와 소비자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연구*, 7권2호, 223-242 .

최만기, 박오수 (1993), "한국 조직행동 연구의 동향, 문제점, 과제 및 전망," *인사조직연구*, 2권 1호, 1-74.

허문구 (1990), "전략군 연구의 비판적 고찰," *경영학연구*, 20권 1호, 259-304.

Abegglen, James C. and George Stalk (1988), *Kaisha: The Japanese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Abernathy, William J. and James M. Utterback (1978), "Patterns of Industrial Innovation," *Technology Review*, June/July, 41-48.

Chandler, Alfred D. Jr. (1962), *Strategy and Structure: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Industrial Enterprise*, Cambridge, MA: MIT Press.

Chandler, Alfred D. Jr. (1977), *The In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 Belknap.

Chandler, Alfred D. Jr. (1990), *Scale and Scope: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arfinkle, Harold (1967), *Studies in Ethnomethodology*, Englewood Cliff, NJ: Parentice Hall.

Ghoshal, Sumantra and Nitin Noria (1990), "Horses for courses: Organizational form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Sloan Management Review*, Winter, 23-35.

Greiner, L. E. (1972), "Evolution and revolution as organizations grow," *Harvard Business Review*, 50, 4, 37-46.

Kim, Linsu (1980),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Structur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 2, 225-245.

Kim, Linsu (1997), *Imitation to Innovation: The Dynamics of Korea's Technological Learning*,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Kim, Linsu and James M. Utterback (1983), "The evolu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ech-

nology in a developing country, *Management Science*, 29, 10, 1185-1197.

Kim, Linsu and Yeongbae Kim (1985), "Innovation in a newly industrializing country: A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1, 3, 312-322.

Kim, Linsu and Yooncheol Lim (1989), "Environment, generic strategies, and performance in a rapidly developing countries: A taxonomic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 4, 802-827.

McDonald, John (1963), My years with General Motors, Garden City, N.Y: Anchor Books.

Miles, Raymond and Charles Snow (1978),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McGraw-Hill.

Mintzberg, Henry (1979), *The Structuring of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Nonaka, Ikujiro and Hirotaka Takeuchi (1995), *The Knowledge Creating Compan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eters, J. Tom and Robert H. Waterman (1982), *In Search of Excell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feffer, Jeffrey (1997), *New Directions for Organization Theory: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orter, Michael E. (1980),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Free Press.

Porter, Michael E. (1991), "Towards a dynamic theory of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Winter Special Issue, 12, 95-117.

Reynolds, Paul D. (1971), *A Primer in Theory Construction*, Minneapolis, MN: Bobbs and Merrill.

Quinn, Robert and Kim Cameron (1983), "Organizational life cycles and some shifting criteria of effectiveness," Some preliminary evidence, *Management Science*, 29, 33-51.

Schendel, Dan (1996), "Editor's introduction to the 1996 summer special issue: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Summer special issue, 17, 1-4.

Spender, J. C. (1979), "Theory building and theory testing in strategic management," in Dan Shendel and Charles W. Hofer (eds.), Strategic Management: *A New View of Business Policy and Planning*, Boston: Little Brown, 394-404.

Stopfold, John and Louis Wells, Jr. (1972), *Managi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New York: Basic Books.

Sutton and Staw (1995), What theory is no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 371-384

Utterback, James M. (1994), *Mastering the Dynamics of Innovation: How Companies Can Seize Opportunities in the Face of Technological Change*,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Wolfe, Richard A. (1994), "Organizational innovation: Review, Critique and Suggested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1, 3, 405-431.

Yoshino, Michael (1968), *Japanese Management System: Tradition and Innovation*, Cambridge, MA: MIT Press.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A Call for Change

Linsu Kim*

Abstract

Management research activities in Korea have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past three decades. Over 4,000 articles have appeared in journals published by management related academic societies. These articles have, however, made little contributions to developing management theories that may be compatible with the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in Korea for two reasons. First, in view of the theory-development process, there is a serious mismatch between the kind of theories Korea needs at this point in time and research methodologies used by most researchers. The majority of the articles introduce either existing Western theories or test hypotheses deducted therefrom without taking into account of local idiosyncrasies. The accumulation of inductive theory-generating, descriptive research must precede deductive theory-testing research. Without the former, the accumulation of the latter will lead to nowhere. Such a problem stemmed largely from skewed training in most American universities. Even seasoned American scholars deplore the unproductive nature of the analytical research tradition. Second, despite drastic increase in research outputs, few have produced critical review papers that integrate existing theori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and, in turn, present new research directions.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requires a major directional change in the future.

Key words: Management research, theory building, Western theories, Korea

* Professor of Management,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36-701.